

2019. 12. 05.(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12월 5일 오전 10:3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I·SEOUL·U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2133-5260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2133-5262
담 당 자	지관우	2133-5294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2133-8660
남북협력정책팀장	심혁보	2133-8661
담 당 자	정동석	2133-8662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6매

서울시, '2020 노벨평화상수상자 월드서밋' 서울 유치

- 박원순 시장-에카트리나 자글라디아 사무총장, 5일 공동기자회견 열어 개최도시 공식발표
- 지속가능한 평화 위한 서울의 노력, 세계적인 국제회의 기반시설 등 고려해 선정
-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평화관련 단체, 대학생 등 1천여 명 '평화' 논의 국제회의
- 박 시장 "2032 올림픽 유치 국제적 지지 확보, 서울의 MICE 산업 한 단계 진보 모멘텀 마련"

전 세계 평화전도사 역할을 해온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수상기관 등 1,0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평화를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 회의가 내년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2020년 제18차 노벨평화상수상자 월드서밋(WSNPL, World Summit of Nobel Peace Laureates)' 서울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박원순 시장과 예카트리나 자글라디아(Ekaterina Zagladina) 노벨 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총장은 5일(목) 서울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18차 회의의 개최도시로 ‘서울’을 공식 발표했다.
 - ‘노벨평화상수상자 월드서밋(WSNPL)’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수상기관 약 30명을 비롯해 평화 관련 단체와 운동가(70명), 세계 각국 유명대학교의 대학생(600명)과 교수진(200명), 외신 기자단(50명) 등 약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 고르바초프 재단의 제안으로 199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지난 2010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바 있다. (15차 스페인 바르셀로나, 16차 콜롬비아 보고타, 17차 멕시코 메리다)

-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국은 “남북평화 문제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의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라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전쟁 이후 이뤄낸 서울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문화, 국제행사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는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모이는 권위있는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평화도시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리고, 내년 개최 예정인 「제1회 서울평화포럼」을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제포럼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서울의 MICE 산업이 한 단계 진보하는 모멘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평화포럼」은 학술회의는 물론 글로벌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와 시민참여행사를 아우르는 대규모 행사로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행사로 「서울평화회의」를 12.4.~5. 개최한 바 있다.

- 서울시와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국은 이달 내년 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 또, 양 기관이 참여하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준비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회의 개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 특히, 내년에 열리는 제18차 회의에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물론 안보·평화 관련 국제 전문가 등을 초청,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내·외적 관심과 역량을 서울에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 과거 갈등과 분단의 경험을 극복하고 평화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서울이 더 이상 분단의 상징이 아닌 미래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의 발신지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 아울러, 전 세계인들과 한반도의 평화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활동 전시회, 평화 콘서트, DMZ 등 평화 상징공간에서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부대행사도 개최한다.

- 국내·외 청년과 대학생들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솔선수범’ 프로그램(Leading by Example)도 주목할 만하다. 전 세계 유명 대학교에서 6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시는 국내 대학생 400여 명에게 참가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WSNPL)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유도하고, 전쟁과 분단을 넘어 평화의 상징으로서 서울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나아가 2032년 하계 올림픽의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노벨평화상수상자 세계정상회의 개요

□ 개 요

- 회의명: WSNPL (World Summit for Nobel Prize laureate)
 - 1999년 고르바초프 재단의 제안으로 시작
 - 평화분야에서 가장 큰 연례행사로, 노벨평화상수상자들과 국제기구, 언론, 비즈니스 및 정부대표들의 패널토론을 공개포럼 형태로 진행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정상회의, WSNPL〕

- 설립자: 90년대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의해 제안된 포럼
- 설립시기/사무국: 2006년, 이탈리아 로마
- 목 적: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활동을 지원, 연례정상회담 참가 네트워킹을 위한 플랫폼 역할 수행
- 주 제: ① 비폭력 및 전쟁 금지, ②사회 및 경제 정의, ③ 법의 지배 및 ④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WSNPL 주요행사

〔본회의〕

- 개막식: 세계 평화상 및 사회 활동에 대한 메달 수여
- 본회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초대연사들이 패널, 청소년 대표들과 대화
- 주 제: 비폭력 및 전쟁없는 세상, 사회 경제적 정의, 법의 규칙,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동시세션〕

- 청소년워크숍: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대학생 등 청소년 리더와 소통
- 지역단체대화: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평화관련 지역단체의 대화
- 비공개회의: 각 기관, 민간단체, 공직 종사자와 대화

[문화행사]

- 문화공연: 콘서트, 공연, 영화 축제 등
- 시민사회단체(NGO) 박람회: 지역 NGO 및 노벨평화상 수상 재단의 박람회
- 사진 전시회: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관련 사진 전시회

역대 유치도시 현황

횟수	개최지	기간	주제	비고
1~8차	이탈리아 로마	1999 ~2007	-	
9차	프랑스, 파리	2008	Human Rights and a World without Violence	
10차	독일, 베를린	2009	Breaking Down New Walls for a World without Violence	
11차	일본, 히로시마	2010	The Legacy of Hiroshima: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12차	미국, 시카고	2012	Speak Up, Speak Out for Freedom and Rights	
13차	폴란드, 바르샤바	2013	Stand in Solidarity for Peace Time to Act	
14차	이탈리아, 로마	2014	Peace. Living it! in honor of Nelson Mandela	
15차	스페인, 바르셀로나	2015	Advocating for Refugees Achieving the World Peace	
16차	콜롬비아, 보고타	2017	Building roads to peace	
17차	멕시코, 메리다	2019	For a world without war	